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전쟁에서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에 대한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일리야조바 금발

The study for the covert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ir Force in the Korean War

A thesis presented

By

Iliiazova Kymbat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February 2014

목 차

제 1장 머리말 1

제 2장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의 배경 6

1. 스탈린이 지원한 김일성의 남침 6

2. 중국의 참전과 공중지원 15

제 3장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의 실체 29

1. 소련공군의 참전 현황 29

2. 공중전과 제공권 35

제 4장 참전 소련 조종사들 51

1. 조종사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 51

2. 귀환 후 비밀 참전의 그늘과 인정 후 변화 56

제 5장 맺음말 61

참고문헌 66

Abstract 72

<국문 초록>

한국전쟁에서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에 대한 연구

일리야조바 금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한국전쟁에 소련이 제한적으로 조종사를 파견했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러시아 정부는 1993년에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소련공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논문의 목적은 미국과 충돌을 회피하려던 소련이 비밀리에 소련공군을 참전시킬 수 밖에 없었던 중국군 파병과 관계된 정치적 배경과 소련공군의 전투활동과 역할 등,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비밀 참전한 조종사들의 기억을 통하여 냉전체제 아래에서 비밀로 지켜야 했던 역사적 사실과 함께 개인이 사라져버렸던 현상을 연구하였다.

소련공군은 중국군 파병 이후에 기지를 중국영내 만주에 두고 평양-원산 선을

넘지 않으며 북한 지역의 서북부, 미그 앨리 상공에서 거부적 제공권을 유지하면서 중국군의 보급선을 엄호하고, 확전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치적 이유로 미공군의 공격대상에서 제외된 만주성역에서 조선-중국연합공군을 건설하였다.

제공권은 미공군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되어 왔는데, 소련공군이 개입하기 전의 전쟁초기를 제외하고는 아니었다. 미그 앨리에서 항공전력은 서로 우세를 내어주지 않고 양측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다고 본다.

소련공군의 참전은 중국군의 파병을 이끌어내고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소련은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밀 참전을 하였고 양측은 확전을 피하고 한반도 내에 국한된 제한전을 하였다.

소련공군의 참전자들은 참전의 사실을 비밀로 하고 전사하여도 진짜 사망원인을 숨겨야 했으며, 공적을 쌓고도 공식적인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참전 기념비와 전사자 묘지도 소련영내에 없었다. 비밀로 하여야 할 정보는 두려움과 압박이었다. 냉전체제에서 역사적 사실과 개인이 사라져 버린 것이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이었다.

핵심단어: 한국전쟁, 소련공군, 중국군, 제공권, 만주성역, 미그앨리, 제한전, 냉전, 참전소련조종사의 기억

학번: 2011-24212

제1장 머리말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또한 소련이 제한적으로 조종사를 파견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참전은 냉전이 끝날 시기까지 소련은 부정하여 왔었다. 러시아 정부는 1993년에 처음으로 한국전쟁에 소련공군의 참전을 인정했다.[1]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되고,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때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와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문서보관소의 문서를 편집한 것을 받아오고, 1998년 예브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의 책이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역)로 나오고, 한국에 소련참전에 관한 것을 다룬 책들은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 내용과 실체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한 논란도 많다.

연구의 목적은 왜 그토록 참전을 회피하려던 스탈린이 비밀리에 소련공군을 참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소련공군의 참전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참전과 관련해서는 중국 내부에서의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소련공군의 참전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것 역시 이 논문의 중요한 문제제기 중의 하나이다.

지난 반세기이상 동안 한국전쟁에서 제공권이 유엔공군의 독무대로 묘사되어

[1] Игорь Сей дов 'Советские асы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ы', ФондРусские Витязи Москва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음도 확인하고자 한다. 공훈을 세우고도 비밀참전 하였기 때문에 그늘 속에 가려져있던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참전시기의 회상과 귀환 후 생활과 사회적 예우도 조명해 보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것의 시작은 1989년 7월『동아일보』에 소련의 적성 (붉은 별)지에 도쿠차예프 중령의 소련공군이 만주에 기지를 두고 발진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는 글을 옮겨와 실었다.[2]

박명림은『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에서 1950년 가을 이후에 소련공군은 한국전쟁에 상당한 병력과 전투기를 투입하였으나 그것 역시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다.[3] 예브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김광린역)은 자료중심으로 편집하여 소련의 스탈린의 한국전 지원과 중국의 파병, 소련공군의 참전의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영호는『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에서 소련항공사단이 중국군에 항공엄호를 제공한 부분과, 맥아더의 만주성역 철폐 주장에 관련하여 중국이나 소련도 유엔군에게 일종의 성역을 인정한다는 합참의장 브래들리의 반박을 이야기하고, 미공군이 소련 미그기들을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지역에 묶어 두려고 노력하였다고 쓰고 있다.[4]

---

[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서울: 나남출판, 1996, 207 쪽에서 재인용.

[3] 앞의 글, 207 쪽.

[4]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서울: 두레, 1998, 285-300 쪽.

A.V. 토르쿠노프는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기』(구종서 옮김)에서 소련의 극비전문을 연구하여 냉전시대의 한국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밝히고 있다.

션즈화가 쓴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최만원 역)에 소련의 문서들과 중국측 자료를 통해서 소련의 지시아래 한국전쟁이 진행된 것과 소련과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을 밝히며 중국의 파병에 대한 소련의 공군력의 지원과 공중전에 관한 것들을 쓰고 있다.

이 외에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에 중점을 두고 나온 논문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펴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에 전현수 교수의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이 처음일 것이다. 개전 초 북한공군의 기습공격에 대한 것과 미공군의 공습이 북한 지역까지 확대된 제공권 장악을 다루었다. 양측 공군의 비행기의 장비와 전술적인 면에 대해서 전술이 변경되는 것들을 연구하였다. 한국전은 역사상 최초의 제트전투기 사이의 공중전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중전 전술과 장비가 고안되고 시험 받는 최초의 무대였다고 맺음말을 하였다. [5]

또한 장성규는『6.25 전쟁기 미국의 항공 전략』은 공개된 문서를 통하여 한국전당시의 항공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미공군의 상대측인 공산공군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하였다. 공산공군의 전략은 지상군에 대한 엄호가 중심이 되었는데 중국군에 대한 소련공군의 엄호를 개입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소련공군은 제한적인

[5] 전현수, <소련 공군의 한국전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625-672 쪽.

엄호만을 실시하였고 유엔군과 공산지상군이 치열하게 대치하는 전선에서 공중 엄호를 제공하지 않았다.[6]

이러한 연구들은 소련공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참전과 소련공군의 참전의 관계,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소련조종사들이 이후에 소련 내에서 어떠한 예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것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연구는 없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소련공군측의 자료를 통해서 당시 전투 상황과 제공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의 전투 상황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연구 자료들은 먼저 러시아 문헌의 책,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원하는 것들을 많이 얻기 어려웠고, 오히려 영문 문헌의 책과 잡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 찾기 쉬었다. 『You-Tube』를 통해서도 다큐멘터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글 문헌은 저서들과 번역본, 신문기사 등을 찾을 수 있었다. 러시아 문헌의 소련자료들도 번역본이 있는 것은 이들도 참조하였다.

참전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수기로 유명한 페페랴에브의 『Лучший ас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ы』(한국전쟁에서 최고에이스), 레브 페트로비치의 『Под крылом-Ялуцзян 224-й ИАП в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е』(한국전쟁에서 제224항공연대), 이고르 세이도브의 『Советские асы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ы 』 (한국전쟁

[6] 장성규, 『6.25 전쟁기 미국의 항공전략』 좋은 땅, 2013, 291 쪽.

에서 소련에이스들), 이 저서들에서 한국전쟁에서 소련공군의 활동과 역할을 찾아 분석하고, 참전자들의 기억을 통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고 사회적 예우도 제대로 못 받던 삶도 밝혀서 냉전체제에서는 평범한 소련 시민이 한국전쟁에 비밀 참전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과 함께 사라졌던 것을 밝히려고 한다. 레오니드 크루로브와 유리 테수르카에브의 저서『*Soviet MiG-15 Aces of the Korean War*』에서는 참전한 소련공군의 활동이 기간별로 편집되어 있어서 공중전 모습을 통하여 당시의 항공전력과 제공권을 분석하려고 한다.

제 2 장 비밀 참전의 배경

1. 스탈린이 지원한 김일성의 남침

1949년 3월 5일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이 3월 7일 스탈린과 회담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남한을 해방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스탈린은 남한에 아직 미군이 있고 38도선에 관한 미소협정이 유효하다며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여 남침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남한이 먼저 공격할 때 반격이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7]

1949년 8월 12일에 대남공격에 대한 요청을 평양주재 소련대사 스티코프에게 전해 달라 하였을 때 대사는 소련 정부의 입장은 북한군이 분명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고 38선 협정도 존재하고 남한이 먼저 침략할 경우에만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8]

1949년 9월 24일에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대규모 국경 분쟁을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선 문제에 대한

---

[7] A.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구종서 옮김) 서울: 에디터, 2003, 44-45 쪽.

[8] 스티코프, 김일성, 박헌영간 대화를 수록한 1948년 8월 12일 비망록,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6 쪽,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김광린 역) 아.태평화 재단 연구총서, 서울: 도서출판 열림, 1998, 24 쪽.

결의'를 통과 시킨다.[9] 이처럼 스탈린은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북한의 공격을 통제하고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대륙에서 국민당에 승리한 중국공산당 모택동(마오쩌둥)은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1950년 1월 17일 스티코프와의 대화에서 김일성은 이승만이 북을 치지 않고 있으므로 인민해방과 통일과업이 달성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북한군)의 남침 공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령과 허가를 받기 위해 스탈린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10]

1월 30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관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11] 스탈린이 공격을 승인을 하겠다는 암시를 처음으로 한 것이다. 미국을 의식하는 스탈린이 1949년 6월의 남한 내 미군 철수, 9월의 소련 원자폭탄 실험성공, 10월의 중국대륙 공산화, 12월의 중소 우호 동맹을 하기 위한 회담 (체결은 1950년 2월 14일), 1950년 1월 12일의 미국무장관 애치슨의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등, 국제 환경 변화가 입장전환의 변수가 되었다.

1950년 3월 30일에 모스크바에 도착 (4월 25일까지 체재)한 김일성은

---

9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결의 제71 쪽/191호, Question N 191, 1949년 9월 24일, 앞의 글, 41 쪽.

10 스티코프가 스탈린에 보낸 1950년 1월 19일 전문, 1-5 쪽, 앞의 글, 45-46 쪽.

11 스탈린이 스티코프에게 보낸 1950년 1월 30일 전문, 앞의 글, 47 쪽.

스탈린에게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은 3일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침하면 남한 내 20만 남로당원이 주도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12]

스탈린은 미국이 중국을 떠났고, 새로운 중국 당국에 군사적 개입을 않을 것이고, 중국은 소련과 중소우호동맹을 체결하여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소련의 원자폭탄보유와 평양에서 소련의 입장이 공고화 되었다는 사실로 미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입 여부를 검토하고 중국 지도부가 찬성해야만 해방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배후에 있으며 조선(북한)을 원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미국은 전쟁의 위험을 무릎 쓰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모택동은 중국 혁명이 완수된 후에 조선을 도울 수 있고 필요하면 병력도 제공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은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탈린은 소련은 서쪽 방면 (동유럽)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다시 한 번 모택동과 상의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미국이 조선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는

---

12 Weathersby, "The Soviet Role", 433 쪽, 션즈화,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최만원 역) 서울: 선인, 2010, 223 쪽에서 재인용.

모험을 할 경우에 소련은 직접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반복하였다. [13]

이와 같이 소련은 원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북한의 남침에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1950년 3월 31일 모택동은 주중 북한대사와의 만남에서 조선의 통일은 전쟁을 통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고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작은 영토를 위해 미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다.[14]

1950년 5월 13일에 북한 지도부는 북경을 방문하고 남침 계획에 동의하는 스탈린의 의견을 전달하자 모택동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내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여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 동지들의 제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반드시 중국과 조선 동지들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만약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토론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친서를 받는다. [15]

---

[13] 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국제부, 김일성의 소련 방문(1950-3.30-4.25)에 관한 보고, 러시아 대통령실 문서고,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52-55 쪽.

[14] 스티코프가 비쉰스키에게 1950년 5월 12일,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 문헌, 1949-53, (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d.), 69 쪽.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 서당, 2000, 85 쪽에서 재인용.

[15] 스탈린이 모택동에 보낸 1950년 5월 14일 소련 외무부 암호전문 제5500호, 113 쪽,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65쪽.

5월 15일에 모택동은 중국은 대만 해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조선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만약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은 38도선 협정에 묶여 있어 전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중국은 그와 같은 의무에 묶여 있지 않으므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16] 중국도 소련의 직접 참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올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직접 참전은 하지 못하고 중국의 병력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16일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침공작전 계획을 모스크바에 보고한다.[17] 6월 19일에 위장선전 활동으로 북한 최고 인민회의는 남한국회에 '평화적 조국 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평화 통일에 관한 제안을 보냈다.[18] 소련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서 모스크바는 6월 22일 평양 주재 소련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앞으로 모든 암호 전문을 해독하지 말라고 지시한다.[19]

전쟁이 시작될 때 북한군에는 약 3000명 정도 소련군사고문관들이 있었는데, 포로가 되면 소련의 개입의 증거가 될까 걱정하여서 38도선을 넘어 남침할 때

---

16 로신이 스탈린에 보낸 1950년 5월 15일 전문, 3-4 쪽, 앞의 글, 67 쪽.

17 스티코프가 스탈린에 보낸 1950년 6월 12일 전문, 앞의 글, 74 쪽.

18 김남식 엮음, 「남로당 연구 자료집 제1집」,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4, 546-549 쪽.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168 쪽에서 재인용.

19 1950년 6월 22일, "한국전 문서요약"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 문서』 29쪽, "'러문서'공개, 6.25진상, 하", 『동아일보』, 1994년 7월 23일. 이완범, 92 쪽에서 재인용.

전방부대에 있던 모든 군사고문관을 소환한다.[20] 김일성은 인민군 전방 사령부에 소련군사고문관을 배치해 달라고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게 요청한다.[21]

스탈린은 군사고문관을 민간인 복장을 하고 소련 국영 통신사 '타스 (Tass)' 특파원 자격으로 파견하며 일선 부대에는 배치하지 말고 전선사령부까지만 보내라고 지시하고 포로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2] 소련군사고문단은 민간 복장으로 위장하고 참전한 경우가 되었다.

1950년 8월 28일 스탈린이 스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 보낸 전문에서 만일 필요하다면 소련은 지상공격기와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23]

스탈린은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상황이 역전되자 9월 18일에 평양 주재 수석군사고문 바실리예프와 스티코프 대사에게 전보를 보내, 김일성에게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4개 사단을 서울 교외 지역으로 이동 배치 할 것을 지시하고 소련국방장관 바실레프스키 원수에게 소련공군이 평양

---

20 션즈화, 『조선전쟁게비』 제3장, 션즈화, 246 쪽에서 재인용.

21 스티코프가 스탈린에 보낸 전보, 1950년 7월 8일, АПРФ, Ф.45, оп. 1, д. 346, лл. 143-144, 앞의 글, 247 쪽에서 재인용.

22 Волкогов Следует ли бояться, с.29, 앞의 글, 247 쪽에서 재인용.

23 Шифровка №75021 от 28 августа 1950 г. 8 Упр. ГШ ВС СССР.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 5-6, 10-11. А.В.Торкунов 『Загадочная война: Корейский конфликт 1950-1953 годов』 (A.V.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1950년 8월 28일자 전문) 82 쪽.

상공 방어를 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북한군에게 공중 엄호를 제공하고 평양 지역 방공 시스템을 건설하라고 한다.[24]

9월 21일 바실레프스키는 빨리 파견하려면 연해주의 보로시로바에 있는 제147 항공사단 84전투기연대의 야크-9 40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검토했다.[25] 그러나 9월 23일 바실레프스키는 소련공군기가 공중전을 지휘할 때 러시아어를 쓰며 무선 통신을 하면 첫 공중전 이후에 미군은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평양 상공에서 작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서 스탈린은 이 방안을 포기한다.[26] 스탈린이 지원한 전쟁 상황이 급변하자 직접 참전을 피하던 정책을 잠시 잊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결국 스탈린은 미국을 의식해 소련공군을 파견해 평양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1950년 9월 28일 조선 노동당은 스탈린에게 '소련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미공군의 절대적 우세로 인민군(북한군)의 모든 군사 행동이 파괴 되고 인원과 물자도 손실을 입었고 통신두절과 보급이

---

24 Alexandre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No.6~7, 1995/1996, 95-96 쪽. 션즈화, 255 쪽.

25 Доклад Василевского Сталину от 21 сентября 1950 г. № 1172 с. АПРФ. Ф. 3. Оп. 1. Д. 827. Л. 79-80. А.В.Торкунов (A.V.토르쿠노프 1950년 9월 21일자 전문), 84 쪽.

26 바실레프스키가 스탈린에 보낸 보고, 1950년 9월 23일,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89 쪽.

중단되고, 서울 함락을 피할 수 없다"며 (9월 28일 서울 수복), "38도선 이북으로 침공할 때는 소련군의 직접 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중국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의용군을 조직하여 출동하도록 원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었다.[27] "불가능하다면"이란 이미 1950년 3월에 김일성의 소련 방문때 스탈린은 '북한은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직접 참전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49년 6월 4일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 Il-10 30대, Will-10 4대, Yak-9 30대, PO-2 4대, Yak-18 24대, Yak-116대 제공되었다.[28] 개전시 북한공군의 총 전력은 훈련기와 지원기를 포함하여 226대로 그 후에 도입된 것으로 유추한다.[29] 그러나 구식의 프로펠러 항공기들은 개전 초 일주일 동안에 미공군에 의해 18대를 잃었고[30] 중국군이 개입되기 전에 거의 격추된다.

소련 참모 제1차장 자하로프 장군은 1950년 11월 1일에 훈련 받은 북한 조종사들로 1개 항공연대가 편성되었다고 보고하고 이 항공연대의 8대가 안주

---

27 1950년 9월 30일 암호 전문 제600308/sh호,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96 쪽.

28 앞의 글, 70 쪽.

29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국군의 전력 현황 (1951년 12월 3일),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6, 목록 3139, 문서철 133, 1-4쪽, 원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 60 쪽. 장성규, 120 쪽에서 재인용.

30 이중근 편저, 『6.25전쟁 1129』, 서울: 우정문고, 2013, 58 쪽에서 재인용.

지역에 처음으로 전투 활동을 하고 2대 격추하고 2명의 상실이었다고 보고한다.[31]

1950년 11월 20일에 스탈린은 북한 조종사 양성에 동의하고 만주에서 소련교관들이 2개 제트기 연대를 위한 조종사 교육을 실시하고 완료 후 MiG-15가 제공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냈다.[32]

유명한 소련공군 에이스 페페랴에브 중령의 회상에, 낮에는 북한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항상 전투에 나갈 비상 대기상태로 있었으며, 제324 항공사단에서는 60명의 북한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서 MiG기들과 함께 북한으로 보내려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1951년 5-6월에 새로 MiG-15bis가 도착한 다음에 MiG-15를 북한 조종사들과 함께 보냈는데 8-9월에 미공군의 폭격이 심해져서 북한 지역의 비행장에서 다시 중국 지역의 비행장으로 이동하여왔다.[33] 소련공군은 비밀 참전하여 유엔공군기와 전투도 하고 북한공군, 중국공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도 같이 했다. 조선-중국연합공군의 항공전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

31 자하로프가 스탈린에 보낸 1950년 11월 11일자 암호 전문, 제26416호, 예프게니 바자노프/나딸리아 바자노바, 102-103 쪽.

32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보낸 1950년 11월 20일자 암호 전문, 제75835호, 앞의 글, 103 쪽.

33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Лучший ас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МИГИ против Сейбров』, ЭКСМО Москва 2009 (페페랴에브 '한국전쟁의 최고 에이스', 에그스모, 모스크바 2009), 122 쪽.

2. 중국의 참전과 공중 지원

중소 양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공군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중국공군을 창설하고 훈련 시키는 것을 소련이 지원하는 문제를 의논했다.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공군은 중국공군이 충분한 기술을 갖기 전까지 중요 시설들의 공중 방호를 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2일, 중국은 스탈린에게 미군이 38도선을 넘으면 조선인으로 위장한 의용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묵덴(선양)에 9개 사단을 배치해 두고 있다고 통보하고 이들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 소련이 공군력을 동원하여 엄호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었다.[34]

7월 5일 스탈린은 중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공중 엄호를 중국군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35] 모스크바를 방호하던 제303 항공사단은 중국의 개입에 대비하여 1950년 7월에 극동의 프리모리예(연해주)로 재배치되고 9월에 중국의 요동반도로 보내졌다.[36]

1950년 7월 13일, 스탈린은 주중 소련대사 로신을 통해 모택동에 보낸

---

34 로신이 모스크바 당국에 보낸 1950년 7월 2일 암호 전문 제1112-1126호,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105 쪽.

35 스탈린이 주은래에게 보낸 1950년 7월 5일 암호 전문 제 3172호, 앞의 글, 105 쪽.

36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Soviet MiG-15 Aces of the Korean War*, NY: Osprey, 2008, 29-30 쪽.

전보에서 124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중국군을 엄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소련조종사들이 중국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 모든 장비를 중국조종사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하였다.[37]

1950년 7월 22일, 모택동은 제공되는 (소련)항공 사단을 선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인데 2개 연대는 안산에, 1개 연대는 랴오양에 배치하여 중국군과, 선양, 안동(지금의 단둥), 퓨순 공업 지역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낸다.[38]

1950년 8월 31일, 떵화, 홍슈에즈, 씨에 팡등은 연명으로 총사령관 주덕(주더)에게 건의하기를 가능한 대규모 공군지원으로 참전하는 것이 속전속결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만약에 공군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출동 시간을 늦춰도 괜찮다고 하였다.[39]

9월 30일에 중국의 총리 주은래(저우언라이)는 이웃 국가(북한)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10월 3일에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르에게 한국군 이외의 군대가 38도선을 넘으면

---

37 스탈린이 로신에게 보낸 전보, 1950년 7월 13일, АПРФ, Ф.45, оп. 1, д. 331, л.85. 션즈화, 294 쪽에서 재인용.

38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АПРФ, Ф.45, оп. 1, д. 334, лл.88-89, 앞의 글, 295 쪽에서 재인용.

39 두평, 『재지원군총부』, 북경: 해방군출판사, 1989, 22 쪽, 앞의 글, 285 쪽에서 재인용.

중국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였다.[40]

그런데 10월 1일에 동부 전선에서 한국군 3사단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하고, 유엔군의 북진은 미국이 유엔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하고 10월 7일 통과되어 10월 9일에 서부 전선에서 38도선을 넘게 된다.

스탈린은 1950년 10월 1일에 주중 소련대사 로신에게 전문을 보내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중략)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선 동무들에게 중국군의 엄호 아래 예비부대를 편성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소 5-6개 사단을 38도선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군 사단들은 자체적으로 지휘되는 중국의용군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41]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모택동은 답신에서 의용군 사단을 편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장비가 취약하여 미군에 대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의 공개적인 충돌은 소련도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미루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주은래와 임표를 보내서 스탈린 동지와 상의를 원한다고 하였다.[42] 미루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이 있었다.

---

40 중공중앙문헌연구실편, 『주은래외교문선』 북경: 중앙문헌출판사, 1990, 25-27 쪽, 앞의 글, 277 쪽에서 재인용.

41 스탈린이 북경에 보낸 1950년 10월 1일 암호 전문 제4581호, 국가 문서고, 97-98 쪽,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118-119 쪽.

42 소련군 총참모부 제2총국, 1950년 10월 3일 암호 전문 제25199호, 앞의 글, 119-120 쪽.

중국의 병력을 동원하고 소련은 빠지려는 스탈린은 중국의 이런 회의적 답신을 받고, 10월 8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택동에게 조선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를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려면 전쟁에 참전해야 하며, 미국의 대일 단독강화를 단념시키고,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과 극동에서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교두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전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고, 또 미국은 전쟁 준비 부족을 이유로 큰 전쟁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며 파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하였다.[43] 이처럼 소련은 자신들은 빠지고 중국에게 파병의 짐을 지우려고 하였다.

1950년 10월 9일 팽덕회(펑티화이)가 소집한 지휘관회의에서 공군의 협력 없는 전쟁 수행은 피해가 많다며 출병을 연기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는다. 10월 11일 스탈린과 주은래의 회담에서 소련공군의 출동 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결정하고, 중국의 파병은 미루기로 결정했다. 모택동은 조선 진입계획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44] 중국은 공군력을 소련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공군과 협조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랬다.

1950년 10월 13일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서 중국 동지들이 중국군의 파병을 거부했으므로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으로 철수하는 것을

---

43 스탈린이 스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 보낸 1950년 10월 8일 편지, 앞의 글, 122-123 쪽.

44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РГАСПИФ. 558, оп. 11, д. 334, лл. 140, 141;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No. 5, 2005, с.109. 션즈화, 297 쪽.

준비하여야 한다고 건의한다.[45] 13일 스티코프와 만난 김일성은 철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모스크바의 건의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46]

1950년 10월 13일 북경(베이징)에서 팽덕회, 고강(까오강)이 참석한 중앙정치국 긴급회의에서 모택동은 전쟁 초기에 소련공군이 진입할 수 없지만 스탈린은 이미 중국의 영토에 대해 공중방호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량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음을 들어 설득하여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 즉시 참전하는 것으로 결정한다.[47]

스탈린과의 회담에서 주은래의 출병 조건은 조선에 진입하는 지상군을 소련공군이 지원과 엄호를 하는 것이었고, 소련대사에게 파병 결정을 통보하면서 초기에는 한국군만 상대 하겠다면서 소련공군이 빨리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떤 경우에도 2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48]

중국의 출병결정 소식을 들은 후에 스탈린은 주은래에게 "소련은 중국 국경 내에 공군을 주둔시키고 변경을 방호할 예정이며, 2개월 또는 2개월반 후에도

---

[45] Телеграмма Сталина Ким Ир Сону от 13 октября 1950 г. АПРФ. Ф. 45. Оп. 1. Д. 335. Л. 2. А.В.Торкунов (김일성에게 보내는 스탈린의 전보, 1950년 10월 13일, A.V. 토르쿠노프), 96-97 쪽.

[46] Шифровка № 600428/ш от 14 октября 1950 г. 8 Упр. ГШ ВС СССР АПРФ. Ф. 45. Оп. 1. Д. 335. Л. 3. А.В.Торкунов (암호문, 1950년 10월 14일. A.V. 토르쿠노프), 97쪽.

[47] 왕염등, 『팽덕회전』, 405-406 쪽. 션즈화, 299 쪽에서 재인용.

[48]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1950년 10월 13일, АПРФ, Ф. 45, оп. 1, д. 335, лл. 1-2, 앞의 글, 301 쪽에서 재인용.

조선에 진입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통지하여[49] 소련공군은 중국 영토와 중국군의 후방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조선에 진입해 중국군과 직접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다. 모택동이 미국의 개입 직후부터 소련의 항공 엄호를 요청한 것은 중국군 병력이 이동할 때 미공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소련공군이 중국 지상군과 협력하여 미군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중국군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중 엄호를 약속하였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련공군은 중국군과 직접 협력하여 전투를 수행한 적이 없다. 즉, 중국에 파견된 소련공군은 중국 지상군에 대한 엄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방 엄호만 하면서 중국공군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가 전투를 수행하기를 바랬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중국군이 파병된 후 중국의 동북지역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중국공군 마크를 단 MiG-15전투기로 압록강 가까이에서 미국과 직접 공중전을 하게 된다. 훈련받고 있던 중국공군은 기술이 부족하여서 중국군의 보급선과 물자를 엄호하기 위해서 정규 소련공군 조종사가 미군을 비롯한 유엔공군(영국공군, 호주공군,

---

[49] 『건국이래모택동문고 』 제1책, 559-560 쪽, 『주은래연보(1949-1976)』 상권, 87 쪽, 앞의 글, 302 쪽에서 재인용.

남아공공군)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하여야 했다.

미국은 중국의 개입 후에도 중국과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루먼의 입장이었고 소련도 전면전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중국군 복장을 하고 중국공군으로 위장하여 작전을 시작하고, 1950년 11월 24일부터는 북한공군으로 위장된 MiG-15 전투기로 비밀 참전한 것이다.[50]

중국군이 참전하여 남쪽으로 진격한 후에 중국군의 보급선과 시설을 유엔군의 공습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 중국 지도자들은 소련공군이 한반도 내의 기지로 이동하여 작전하길 바랬으나 스탈린은 한반도 내의 기지로 소련공군의 진입을 거부했다.

1951년 3월 1일 모택동이 스탈린에 보낸 전문에서 "(중략) 대공방어력이 없어 적의 공습으로 보급품의 30-40%를 상실하고 있고 (중략) 팽덕회 동무는 소련공군이 조선 반도 내의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략) 그러나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하였다.[51]

3월 15일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전방과 후방에 대규모의 공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소련공군부대를 조선 및 중국군 후방지역

---

50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18 쪽.

51 모택동이 스탈린에 보낸 1951년 3월 1일 암호전문 제17255호,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148-149 쪽.

(한반도 내)으로 이동 시키자는 제안을 수락하지만 핑계를 단다. 만주의 안동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중국항공사단에 대한 엄호를 담당해야 하고, 중국군이 많은 전투기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안동을 엄호하고 있는 2개의 중국항공사단을 조선 전선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련이 안동에 1개 항공사단을 추가 배치 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말한다.[52]

소련은 안동에 있던 제324 항공사단 옆에 5월 초에 제303 항공사단을 배치한다.[53] 한반도에는 훈련받은 중국항공사단이 들어가고 소련공군은 한반도 내 기지로 이동은 하지 않고 국경 지대인 만주의 안동에서 대공방호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훈련받은 중국공군은 1951년 1월 21에 MiG-9 전투기 몇 대가 처음으로 공중전에 참가했다.

1951년 3월 23일에 주은래가 스탈린에 보낸 전문에는 안동으로부터 조선의 안주까지 철로변의 교량과 4개의 공군기지를 엄호하는데 소련의 대공화기 부대(대공포부대)가 담당해 주길 제안하면서 나머지는 중국군이 엄호를 맡는다고 하였다.[54] 4월 12일 소련군 총 참모부는 대공화력은 소련공군 부대가 전개되어 있는 비행장을 엄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55]

---

52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1951년 3월 15일 암호 전문 제1749호, 앞의 글, 149 쪽.

53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2008, 29 쪽.

54 중국인민해방군 역사자료 총서편집 위원회,『공군회억사료』, 북경: 해방군출판사, 1992, 245-249 쪽. 션즈화, 296 쪽에서 재인용.

55 주은래가 스탈린에 보낸 1951년 3월 23일 전문 제17994호,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소련공군의 방공포 부대를 한반도의 안주까지 파병을 원했던 주은래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스탈린은 표면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 안 한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지키고 있다.[56]

5월 22일에 스탈린은 중국이 이미 MiG-15항공사단 6개와 MiG-9항공사단 4개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공군의 전투기 MiG-9가 유엔공군의 적수가 못 되므로 MiG-15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 372대를 무상으로 공급될 것이고 MiG-9는 훈련용으로 보유하기 바란다고 모택동에게 전문을 보낸다.[57] 겉으로는 동맹국에 협력하는 모습이지만 장비들을 지원하여 훈련시킨 중국공군이 한반도 내에서 작전하게 하고 소련은 빠져보려는 의도이다.

1951년 8월 11일에 모택동이 스탈린에 보낸 전문은 "현재 조선에 건설중인 비행장들이 적공군기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있어 비행장 건설 공사를 끝 마칠 수 없는 형편임, (중략) 우리의 대공화기는 8,000m 이상의 적기를 격추할 수 없음, (중략) 중조국경(한중국경, 압록강 경계)근처의 안주에 건설된 또 다른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안동 주둔 소련군 3개 대공포연대를 조선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를 소련정부가 검토해 주기 바람"이었다[58] 여기에 대한

바자노바, 150 쪽.

56 바실레프스키 및 쉬테멘코 원수가 스탈린에 보낸 1951년 4월 12일 전문 제646007호, 앞의 글, 150 쪽.

57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1951년 5월 22일 전문 제1713호, 앞의 글, 151 쪽.

58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1951년 8월11일 암호 전문 제22764호, 앞의 글, 168 쪽.

답신으로 8월 17일 소련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안주 지역의 비행장 건설 작업을 직접 엄호하기 위해 안동 지역 주둔 2개 소련군 대공포연대를 파견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59] 실제로 파견하였다면 소련공군의 지상 요원이 한반도 내에 비밀 참전이 된다.

그런데 10월 24일에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발신한 전문에 보면 "현재 적공군기들이 아군의 통신시설을 파괴하는데 주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략) 소련공군 부대와 중국공군 부대들은 공중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소련 및 중국의 대공포부대들이 대공 사격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음, (중략) 아군의 규모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략) 안주 지역의 비행장과 철도에 대한 대공 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련정부가 북조선에 대공포사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람"[60]과 같이, 이미 2달 전 8월 17일자 전문에서 안주 지역에 2 개 소련군 대공포연대를 파견하는 제안에 동의한 바가 있는데, 10월 24일 현재 요청을 보면 아직도 소련공군 대공포부대의 한반도 내 파견이 미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11월 14일에 소련군사고문단장 크라소프스키 장군을 통하여 모택동에 전달한 전문에 "우리는 주로 항공 공격 전력에 의하여 북조선 내의 통신망이 방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비행장 건설 작업을 가속화

---

59 소련정치국결정 83호 제152항, 암호 전문 제4757호, 1951년 8월 17일, 82 쪽, 앞의 글, 169 쪽.

60 소련군총참모부 제2총국, 암호 전문 제25187호, 1951년 10월 24일, 앞의 글, 175 쪽.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임, (중략) 대공화기는 단지 주요 대규모 시설들을 엄호해야 함, 그것은 바로 2 개의 소련군 대공포 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61] 라고 나타나 있다. 대공포 사단이 어디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주에 전개된 소련공군 기지를 방호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소련공군 대공포부대의 한반도 내로 파견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되는 중국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련공군은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비행기지를 중국영내 만주 지역에 두고 한반도 내 북한 지역에서 비밀 작전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산측의 후방지원과 보급선을 보호하고 만주 지역에서 공산측 공군을 건설하여 중국군 개입 이후의 전황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소련은 사실상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소련과 미국은 모두 이 사실을 비밀로 하였다. 케난은 한국전쟁을 승인한 소련의 목적은 북한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전쟁은 지역적이고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반도에 제한된 공격이라고 결론 지었다. 케난은 1950년 7월 27일 정책 기획실회의에서 소련이 한국전쟁의 배후에 있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공개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론도

---

61 스탈린이 크라소프스키를 통해서 모택동에게 보낸 1951년 11월 14일 암호 메시지 제6648호, 앞의 글, 176쪽.

동시에 자극하여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직접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했다.[62]

미소 양측이 한반도 내에 국한되는 제한전을 원했기 때문에 미공군력으로 만주를 공격하자는 맥아더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맥아더는 해임된다. 맥아더는 중국군의 병력과 물자의 집결지인 만주 지역이 미국의 공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종의 특권을 누리는 성역이라며 유엔군이 불리한 상황이라 타격을 주장하였는데[63] 미국 합참의장 브래들리는 중국이나 소련이 전선의 후방 지역으로 공군력을 동원하여 유엔군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공산세력도 유엔군에게 일종의 성역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반박하였다.[64]

소련공군 제64 전투비행군단은 평양-원산 선을 넘지 말라고 명령받고 있었는데 스탈린은 중국공군의 작전범위도 제한한 것으로 밝혀진다, 1952년 8월 20일 스탈린과 주은래의 대화에서 북조선(북한)을 대신하여 중국이 남조선(남한)에 대하여 폭격을 개시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는데 스탈린은

---

62 "Notes of Meeting", June 27, 1950, box 78,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aff, RG 59, 김영호, 205-206 쪽에서 재인용.

63 Mac Arthur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November 30, 1950, *FRUS*, 1950, Vol. VII. 1631 쪽, 앞의 글, 287 쪽에서 재인용.

64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Jessup, November 28, 1950, *FRUS*, 1950, Vol. VII, 1242 쪽, 앞의 글, 288 쪽.

“공군은 국가소유이며 따라서 중국의용군은 국가소유 공군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였다.[65]

대외적으로 정규 중국군이 아닌 자체적으로 지휘되는 의용군으로 구성된 참전 형식을 스탈린은 요구했었음을 기억하면 소련은 중국의 파병도 정식 참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소련이 제공한 항공기로 창설한 중국공군(중국인민지원공군)의 작전도 통제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만주에 주둔한 소련공군이 공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역을 인정받는 것처럼 중국공군에게도 남한 후방지역의 폭격을 제한하여 미소 양측 모두 성역의 존재를 인정하는 제한전을 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

중국군의 대규모 증원을 막기 위해서 압록강 다리를 파괴해야 한다는 맥아더의 주장에도 합참은 압록강 다리 중 북한 쪽의 다리 부분을 폭파시키는데만 동의한다, 그리고 중국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모택동은 고강에게 압록강 다리의 파괴에 대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하고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에 적절한 지점을 압록강 주변에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66]

소련공군은 북한 지역의 시설물들과 중국군의 보급선, 압록강 다리를 목표로 하는 미군 전폭기를 막는 것이 임무이었다. 또한, 만주에서 북한공군과

---

65 비신스키와 페도렌코가 1952, 8, 20의 스탈린과 주은래 간의 대화를 수록한 비망록 54-72 쪽,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216 쪽.

66 Mao to Peng, October 25, 1950 in *Chinese Historians*, 85 쪽. 김영호, 282 쪽에서 재인용.

중국공군의 조종사를 훈련시켜서 조선-중국연합공군의 공중전력을 성장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제 3장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의 실체

1. 소련공군의 참전 현황

반세기 이상 동안, 서방측 자료에 의해서 1950년과 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에서 공중영역은 지원한 소련조종사도 있지만 주로 북한공군과 중국공군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감동적인 격추비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미군 전투기조종사들의 독무대로 묘사되어 왔다. 진실은 좀 다른 것이었다, 전투지역에서 계속해서 교체되는 정규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MiG-15 이었고, 미공군 조종사의 상대였던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많은 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공중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67]

소련조종사들은 전쟁 당시에 알려진 것처럼 개별적으로 지원한 "지원조종사들(volunteer pilots)"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으로 항공사단 규모로 외국으로 파견되고 교체되는 정규 소련공군으로 전투근무를 한 것이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소련과 방위협력을 포함하는 중소 우호 동맹 조약을 1950년 2월 14일에 체결하고, 소련공군이 중국에 주둔하여 중국공군의 창설과 훈련을 시키고 중국공군이 충분한 기술을 갖기 전까지 주요 시설들을 공중 방호하게 된다, 국민당정부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상해(상하이)를

[67]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86 쪽.

방호하는 소련공군 상하이그룹 제106 항공사단은 1950년 10월 말까지 중국공군을 훈련 시키는 일을 한다. 바로 뒤에 제106 항공사단은 제50 항공사단으로 재편되어 1950년 12월부터 한국전쟁에서 작전을 하게 된다.

중국주둔 소련공군의 사령관 크라소브스키 중장은 소련참모장으로부터 한국전쟁에서의 작전을 위해 제64 전투비행군단 (64th IAK Units)을 만들 것을 명령받고 11월 15-24일에 묵덴(선양)에서 벨로브 소장을 사령관으로 창설한다.[68]

제64 전투비행군단에 교체되면서 배치되었던 항공사단은 시기별 순서대로 제 151 항공사단은 두 번, 제28 항공사단, 제50 항공사단, 제324 항공사단, 제303 항공사단, 제97 항공사단, 제190 항공사단, 제133 항공사단, 제578 항공연대 (태평양함대 항공대), 제216 항공사단, 제781 항공연대 (태평양함대 항공대), 제32 항공사단, 제351 항공연대 (야간전투 비행대), 제298 항공연대 (야간전투 비행대)이었는데 대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항공사단을 기본으로 하고 1951년 9월부터는 야간전투 비행대가 합류했다.

대부분은 6-7개월 정도 참전하고 교체되었지만 제133 항공사단의 경우는 최장으로 종전시기까지 14개월 넘게 참전하였다. [69] 항공사단뿐만 아니라 4개의 고사포사단, 2개의 고사탐조연대, 2개의 비행정비사단이 파견되었다.[70]

---

68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11-18 쪽.

69 앞의 글, 87-88 쪽.

70 러시아 국방성문서보관소, 문서군 64군단, 목록 565836, 문서철, 1,15쪽. 전현수, 644 쪽에서

1952년에 만주의 압록강지역에는 소련공군의 2개 항공사단, 중국공군의 2개 항공사단, 1개 북한공군사단이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부는 1952년 새로 개발되어 동유럽에 배치한 MiG-17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1952-53년에 MiG-17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소련군사지도부가 거부한 것은 한국전에 대한 견해의 변화가 분명한데, 크레믈린은 계속 거부 하다가 전쟁의 마지막 주에 모스크바는 마음이 약하게 되었다. [71]

소련은 NATO에 대항하는 동유럽을 더 중요시하고, 미국을 의식하여 휴전회담도 시작되었고 확전을 우려해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을 참전시키면서도 한반도 내로 국한되는 국지전을 소련도 원했다.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참전은 냉전이 끝날 시기까지 소련은 부정하여 왔었다.

한국전쟁 중에 전투기의 마크를 중국공군과 북한공군으로 위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장도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군 제복을 착용하였었고 후에는 북한군 제복이나 민간복장을 하여 그들이 소련공군 조종사임을 숨기려 하였다. 무선통신 때는 말을 많이 안하고 필요한 한국말 항공언어를 발음대로 러시아 키릴문자로 써놓은 카드도 사용하였는데 이런 속임수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재인용.

[71] Steven J. Zaloga, “The Russians in MiG alley”: the nationality of the “honcho” pilots is no longer a mystery, The Soviets now admit their part in the Korean war”, *Air Force Magazine*, volume 74, issue 2, February 1991.

격렬한 공중전에서 곧 러시아말로 교신하게 된다.[72]

유엔군에게 포로가 되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엄격한 제한을 받으면서 작전을 하였는데,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의 상공에서만 작전을 하고 유엔이 장악하고 있는 황해 (Yellow Sea)로 적기를 추격하지 않았다. 유엔군이 관할하는 지역이나 전선에서 30-50mile 내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1951년 5월에 스텔마크 소위는 B-29를 공격하던 중에 격추되어 긴급 탈출하였으나 유엔관할 지역에 착지하게 되었을 때 포로가 되어 발각되는 것보다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다.[73] 참전사실이 밝혀지면 안되기 때문에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포로로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참전한 사실의 비밀유지뿐만 아니라 제트전투기의 항공기술이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였다. 서해로 탈출한 MiG-15조종사는 미공군 구조대의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도중에 구조대의 엄호망을 뚫고 들어온 다른 MiG-15에 의해 기총사격을 받고 전사하였다. 그러나 1951년 4월 서해상에 추락한 MiG-15기가 유엔측에 인양되는 것은 막지 못하였다.[74]

1951년 10월 6일에 페페라예브의 공격 후에 긴급탈출 의자가 작동되지 않은 Sabre 조종사는 평양 서쪽 해변에 불시착하고 조종사는 헬리콥터로

---

72 Steven J. Zaloga, volume 74, issue 2.

73 앞의 글.

74 Wiliam T. Y'blood, *MiG Alley: The Flight for Air Superiorit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10 쪽. 장성규, 240 쪽에서 재인용.

구조되지만, F-86기체는 공산측에 남겨져 연구를 위해 모스크바로 보내진다.[75]

소련공군은 비밀 참전으로 인하여 만주에 있는 비행기지에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연료만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의 작전만을 수행하였는데, 미공군도 압록강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연료만을 주어서 이 지점을 빙고지점(bingo point)이라고 불렀다. [76] 소련공군과 유엔공군은 미군 조종사들이 미그 앨리(MiG Alley)라고 부르는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한정된 지역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게 된다.

미공군은 북한 지역에서 공중전을 하고 만주 영공으로 돌아가는 적기(북한공군으로 위장한 소련공군 전투기)들을 2-3분만 추격해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단시간의 추격 (hot pursuit)'을 허용하였다.[77] 만주 지역으로 추격해 들어가는 미군기들이 착륙해 있는 항공기나 지상병력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78]

그러나 실제로는 접경의 비행장에서 적기가 이착륙할 때를 노려서 만주지역의 비행장 상공에 대기하면서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활주로를

---

75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251-252 쪽.

76 Knox and Coppel, The Korean War, 243 쪽. 김영호, 289 쪽에서 재인용.

77 "Background Paper, Korea, June 25, 1950 to Date", reel 5, Records of the Northeast Asian Affairs (0044), RG 59. 김영호, 289 쪽에서 재인용.

78 Holliday, "Air Operations in Korea",155 쪽, 앞의 글, 289 쪽에서 재인용.

공격하여 많은 MiG기를 파괴하였다. 유엔군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군 조종사들은 비밀을 지킬 수 있는 편대동료기 조종사들과 gun camera를 조작하여 장면을 사라지게 하고 MiG를 사냥하러 만주로 넘어 갔었다.[79]

유엔사령부는 1953년 4월에 뮬라 작전(Operation Moolah)을 하였다, MiG조종사들에게 MiG-15를 몰고 유엔지역으로 투항(귀순)하면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 러시아말 방송은 소련이 전파방해를 하였고, B-29가 전단을 뿌리기도 하였다.[80]

소련조종사뿐만 아니라 소련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쟁 동안 압록강 부근의 만주에서 약 70,000명의 소련군인이 지상요원으로 방호작전을 하였다, 그들은 공중감시 레이더 시설과 지상 통제소, 그리고 레이더연동 방공포를 운용하는 방공포사단에 근무하였다.[81] 이들은 중국군복을 입고 있었다.[82]

---

79 Dogfights: MIG alley (television series) United Kingdom: The history Channel, Retrieved 2007.02.04

80 Steven J. Zaloga, volume 74, issue 2.

81 앞의 글.

82 Stalin's Secret Air War, www.Secrets of War.com, Documedia Group, YouTube.

2. 공중전과 제공권

제공권이란 “전 전쟁지역에서 적 공군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중 우세의 정도”로 정의하였다.[83]

한국전쟁에서 제공권은 미군전투기 조종사들의 독무대로 묘사되어 왔다. 유엔공군기의 상대는 비밀 참전한 제64 전투비행군단의 정규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MiG-15이었고, 소련조종사의 많은 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중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정치적 이유로 평양-원산 선을 넘지 않는 지역에서 작전을 해야 했고, 포로로 사로 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고, 유엔이 관할하는 황해 지역이나 전선에서 30-50 mile 내로 들어 갈 수 없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제약으로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미군 조종사들이 미그 앨리(MiG Alley)라고 부르는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의 한정된 지역에서 공중우세를 내어주지 않고 방어적 제공권을 유지하며 유엔공군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공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군과 북한군에 대항하여 전선으로 가는 병력(증원부대)과 보급품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었고, 비밀 참전한 소련

---

83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2010, 338 쪽. 장성규, 118 쪽에서 재인용.

조종사들은 제64 전투비행군단의 책임 작전지역에서 중국군의 보급선을 방호하는 것이 임무이었다. 유엔 전폭기들의 폭격작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유엔전투기들은 적기(북한공군으로 위장한 소련공군전투기)들을 압록강 북쪽에 묶어놓으려고 하였다.

중국군의 참전 이후에 공산공군의 위협이 증가되자 미공군의 전략은 북한 전역에서 공산측의 비행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으로 B-29의 희생을 가져왔다. 전투기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MiG-15기를 만주까지 월경하여 추격하는 극단적인 방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84]

1950년 11월 1일 한국전쟁에 등장한 MiG-15는 초기 2달 정도는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유엔군의 구형 제트기 (F-80, F-84)들에 비해 빠른 상승속도로 높은 고도에서 상대할 자가 없었으나 1950년 12월 17일 비슷한 성능을 가진 F-86 Sabre의 등장으로 균형이 맞게 된다. 중국군이 더 남진함에 따라서 안동에 있는 기지로 이동하여 평양과 더 남쪽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하였으나, 소련공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Sabre에 밀려 점차 제공권을 내어주게 된다.

레오니드 크루로브 와 유리 테수르카에브의 저서 “한국전의 소련 미그 에이스 (*Soviet MiG-15 Aces of the Korean War*)” 를 기본으로 여러 참전자들 (페페랴에브, 콜레스니코브 등)의 저서들과 이고르 세이도브 같은

---

84 장성규, 8 쪽.

전쟁 역사학자들의 문헌을 참조하여 공중전을 재구성하였다.[85]

안산에 있던 소련 제151 항공사단 MiG 5대는 1950년 11월 1일에 처음으로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에서 유엔공군기들을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미공군의 F-51D Mustang과 공중전을 하여 1대를 격추하였다, 미공군의 기록에는 격추당한 것이 없다. 같은 날 F-80C Shooting Star와 제트전투기 사이의 최초의 공중전을 하였다. [86]

중국군의 1차 공세 (10월25일)후에 유엔공군은 정체된 지상군을 대신하여 1950년 11월 6일부터 3주간 미공군은 맹렬한 폭격을 하게 된다, 11월 8일에는 600대가 출격하여 신의주와 압록강 철교를 대폭격하고 청천강 이북의 도시에도 폭격을 가했다.[87]

중국주둔 소련공군의 사령관 크라소브스키 중장은 소련 참모장으로부터 한국전쟁에서의 작전을 위해 제64 전투비행군단 (64th IAK Units)을 만들 것을 명령 받고 11월 15-24일에 묵덴(선양)에서 벨로브 소장을 사령관으로 창설한다. 소련 제50 항공사단은 새로운 MiG-15bis 전투기를 받은 후 11월 20일에 안산으로 이동하고, 11월 24일에 모든 항공기는 붉은 별을 북한공군

---

85 레오니드 크루로브와 유리 테수르카에브는 1989년부터 근 20년을 러시아 국방성의 소련자료와 100명 이상의 제64 전투비행군단 참전자들의 회상, 전투보고서로부터 공군사령관과 참모들의 문서까지 근거하여 한국 전쟁에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을 연구하였다.

86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13 쪽.

87 백선엽, 『군과나』, 서울: 시대정신, 2009, 163 쪽.

마크로 바꾸고 전투준비를 한다.[88] 이제부터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북한공군으로 위장한 미그기들로 비밀참전하게 된다.

12월에 중국군이 더 남쪽으로 진군하여 중국 국경 (한중 국경)에서 75km 떨어진 보급선과 북한 지역의 시설을 방호하게 되는데,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청천강의 주요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압록강에서 120km떨어진 곳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엔공군기들을 요격하게 되었다.[89]

소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조선-중국연합공군의 제트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북한 지역의 비행장의 건설을 저지하는 미공군의 폭격이 전략의 우선이 되어 가고 있었다. 소련공군은 만주와 북한 지역의 비행장 건설을 엄호하는 활동을 하였다. 1951년 1월 21일에 중국공군의 MiG-15는 최초로 미공군기와 교전을 하였고 2대의 상실을 인정하였다.[90]

1951년 봄 공산측은 비행장 건설을 개시하면서 항공공세를 증가시켜서 1951년 3월에 총 250대의 공산공군기가 302대의 미공군기와 교전을 하였고 4월에는 총 172회의 공중공격을 하였는데 그 중에 149회가 MiG-15에 의한 것이었다.[91]

---

88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18 쪽.

89 앞의 글, 19 쪽.

90 Xiaoming Zhang,"Air Combat for the People's Republic" 273 쪽. 장성규, 229 쪽에서 재인용.

91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Far East Command, Command Report,

1951년 4월 12일에 압록강 다리 공격작전에서 B-29폭격기의 4분의 1이 손상을 입은 "Black Thursday" 라고 불린 이날 이후 극동공군은 낮 시간에는 B-29의 신의주로 출격을 금지하고 야간공격만 하도록 한다.[92] 소련공군은 B-29폭격기의 주간공격을 저지시켰다.

6월 1일에 소련 제324와 제303 항공사단이 B-29를 요격하였는데 스텔마크 중위는 4대의 B-29를 공격하여 1대를 격추시키고 2대를 더 손상시킨 후에 Sabre에 의해 격추되어 긴급탈출 하였다, 그가 지상에 내렸을 때 중국군 보병은 미군으로 착각하고 그를 포로로 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변장한 미군으로 돌변하여 중국군 3명을 권총으로 쏘았다. [93]

1951년 7월 21일 제196 항공연대의 조종사들은 흐린 날씨에 묵덴으로 접근하는 8대의 F-94s를 발견하고 요격하여 4대를 격추한다, 페페랴예브는 이중 2대를 격추시켰다. 미해병대의 기록에는 F9F 1대 상실로 기록되었는데, 중국측 수색대에 의하면 비행기 잔해와 2명의 조종사 사체를 발견하고 2대는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94]

1951년 9월에 유엔전폭기들이 압록강 지역에 많이 출격하면서 상실이 많게

March-April 1951, Compiled by Military Section, GHQ FEC. (Top Secret), <RG 550>, 장성규, 235 쪽에서 재인용.

92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26 쪽.

93 앞의 글, 32 쪽.

94 airaces.narod.ru.

되자 미공군은 청천강의 북쪽(미그 앨리)으로는 출격하지 않도록 명령하게 된다. 이후부터 미공군의 작전 중심이 청천강과 평양 사이의 지역이 된다.[95] 소련공군은 미군전폭기들을 청천강 남쪽으로 밀어내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북한지역 전체에 제공권을 가지고 중국군의 보급선을 방호하려면 북한지역에 소련공군 기지를 가져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소련공군의 기지는 한반도 내로 이동하지 않았다.

10월 22일에 대규모의 공격을 하는 미공군 역사의 'black week'를 열어 B-29가 태천 기지를 폭격하고, F-80과 F-84전폭기들이 숙천-안주-선천 지역의 철도역을 공격하였다. 1951년 10월 23일은 제64 전투비행군단의 레이더에 북한지역으로 오는 유엔공군기 8개 그룹이 탐지되어 MiG 조종사들이 작전을 개시하여 유엔공군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어서 "Black Tuesday"로 기록되었다. MiG기들은 B-29 10대와 F-84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소련공군은 전투기 상실은 없고 3대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한다.

27일은 black week의 마지막 날이었다, 32대의 F-80C Shooting Star와 F-84 ThunderJet의 호위를 받는 9대의 B-29는 주간공격으로 안주 지역의 철도 다리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 미공군은 MiG 조종사들이 가능하면 바다 위를 나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능한 오랫동안 황해를 날아서 목표에 근접해서 해안선을 넘는 계획을 하였다. 27일의 MiG-15와 B-

[95]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38 쪽.

29의 접전은 주간에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중전으로 마지막이었다.[96]

미공군의 B-29폭격기들은 야간폭격작전으로 전환되고 평양 북쪽으로는 더 이상 비행하지 않게 되었다. 미공군 폭격기 사령부는 10월의 마지막 주에만 공산측의 대공포화와 MiG-15의 공격으로 B-29 5대 상실, 8대 손상되고, B-29 승무원 5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B-29가 한국전쟁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적 전망이 팽배했다.[97]이 무렵부터 미공군은 무선유도시스템 '쇼란 (SHORAN)' 장비를 도입하여 주간의 MiG기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야간폭격을 할 수 있었으나 폭격의 정확도는 떨어졌다.[98]

1951년 11월부터는 소련공군의 야간전투 조종사들이 미공군의 야간폭격대를 요격한다. 1951년 12월 1일은 RAAF (Royal Australian Air Force, 호주공군)의 77비행중대는 큰 패배를 하였다, 5개월 전에 F-51D Mustang에서 Meteor F8로 바꾼 후에 MiG기들과 공중전을 하여왔는데, 이번 공중전 패배로 RAAF 비행중대는 1952년 새해부터는 지상공격으로 임무를

---

96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42-48 쪽.

97 "History of FEAF Bom Com, July-Dec. 1951," p.13-14, 김태우,『폭격』, 서울: 창비, 352 쪽에서 재인용.

98 Conrad C. Crane,"Raiding the Beggar's Pantry: The Search for Airpower strategy in Korean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3,No.4, 1999.10, 909 쪽. 김태우, 352 쪽에서 재인용.

전환하였다.

1951년 12월의 미공군은 한국에 5개 비행중대 F-86 127대를 배치하고 일본에 38대를 예비로 두고 있다. 미공군력의 증강으로 제64 전투비행군단의 소련 조종사들은 전폭기를 호위하는 F-86의 방호정찰을 막아내는 것이 어려워졌다. [99]

1950년 11월 1일부터 1951년 12월 6일까지 모두 569대 (방공포로 격추한 59대 포함)를 격추하고 63대가 격추 당한 것으로 기록된다.[100]

1952년 3월은 소련 조종사들에게 더 불리해졌다. Sabre들이 지금까지 드물었던 만주의 기지 근처에서 제공권을 굳히고 있었다, 압록강 하구를 선회하고 중국영공까지 들어오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유엔전폭기의 전술도 바뀌어서 대규모 작전에서 소 그룹으로 수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출격으로, MiG기가 나타나면 해안선을 넘어 물러가 한만 (Korean Bay)을 선회하며 MiG기가 떠날 때를 기다렸다.

1952년 4월부터 미공군 Sabre들은 유엔에서는 중국영공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무시하고 월경추격 (hot-pursuit)하여 들어와, 안동 기지와 타퉁카오 기지에서 MiG기들이 이착륙할 때 공격을 하며 제64

---

[99]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48-49 쪽.

[100] 슈테멘코가 포스크레비셰프에게 보낸 전보, 1951년 12월 9일, АПРФ, Ф.3, оп. 65, д. 829, лл. 69-70. 션즈화, 316 쪽.

전투비행군단 기지들을 봉쇄하게 되었다.[101] MiG기 상실의 반은 발진과 귀환할 때에 일어났다.

소련공군의 증강은 없었지만 조선-중국연합공군의 항공기는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서 1951년 중반부터는 미공군 보다 수적으로 커지게 되었는데, 이런 월경추격은 MiG-15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그 비행장의 항공기가 유엔군의 항공기를 공격할 경우, 그 항공기를 모기지까지 추격하여 착륙직전까지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다.[102]

1952년 5월에 제64 전투비행군단은 소 그룹 작전을 하도록 명령하여 공중전의 80%이상이 비행중대나 편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런 전략으로 소련 조종사들의 승리는 인상적이었다.[103]

1952년 6월에 미공군이 수풍 발전소를 공격할 때, 수적열세와 나쁜 날씨 때문에 기지를 봉쇄당한 소련조종사들은 Sabre를 제거하며 발진 할 수 없었다.

1952년 9월부터 Sabre들과 공중전은 소련기지 상공에서 일어나게 되어 거의 반수가 자신의 소련기지에서 격추되었고 조종사 손실은 이륙과 착륙 때 일어난 것이 60%를 넘게 되었는데 낙하산을 제대로 펼칠만한 충분한 고도가

---

101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62-64 쪽.

102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368 쪽. 장성규, 281 쪽에서 재인용.

103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65 쪽.

부족하기 때문이었다.[104]

1953년 4월에 유엔 전폭기조종사들은 전투기 엄호를 받으며 높은 고도에서 MiG Alley로 들어와 목표물 상공에서 급강하 하여 공격하는 새로운 전략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제64 전투비행군단의 소련조종사들은 쌍이나 작은 단위로 '자유사냥' 출격으로 반격하였다.

1953년 5월에 미공군 전폭기들은 MiG-Alley로 출격횟수를 증가시키며 제64 전투 비행군단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고, 남한 지역에 F-86 Sabre가 250대 이상 있어서 소련공군의 상실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3년 7월은 한국전쟁의 마지막 달로 소련공군의 상실의 3분의 1은 이륙과 착륙할 때 일어났고 MiG 조종사에 인정된 격추공적의 반은 소련기지 근처에서 일어났다. [105]

제공권은 소련공군 참전 처음 2달은 MiG-15가 확실히 우세하였으나, 점차 F-86이 증가되면서 1952년 봄부터는 소련기지의 상공에서 공격으로 이착륙할 때 공격받은 상실이 전투에서 상실과 비슷해질 정도로 소련공군기지가 봉쇄당하고 유엔공군에게 제공권을 내어준다, 소련 조종사들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책임지역으로 들어오는 전폭기들을 성공적으로 요격하였다.

---

104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 70-72 쪽.

105 앞의 글, 83-85 쪽.

중국공군이나 북한공군이 아닌 정규 소련 조종사들의 MiG-15 전투기들은 미공군측에 격추의 피해를 입히고 중국군 보급선에 대한 폭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MiG-15는 Sabre를 제외한 모든 미공군 전투기보다 우세하였고, 기총의 구경이 미군의 12.7mm보다 큰 37mm 1개와 23mm 2개를 무장하고 있어서 강력하여 미공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었다.

미공군이 미그 앨리에서 정찰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Sabre는 저속으로 비행하여 도달하였는데 MiG-15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고도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었다. 폭격기 편대를 엄호하려면 B-29를 근접해 쫓아가야 하는데 프로펠러기의 속도에 맞추려 제트비행기는 저속으로 비행하다가 공중전을 전개할 만한 속도를 내기가 힘들어 전투효율성이 떨어졌다.[106]

소련조종사들은 높은 고도에서 뛰어난 활동성을 보이는 MiG-15의 장점을 활용하여 높은 고도에서 16~20대의 비행기로 원형을 만들어 매복하다가, 편대 단위로 태양을 등지고 접근해서 적기를 공격한 후에 다시 높은 고도로 상승했다. 미공군 조종사들은 'yo-yo'라고 불렀다. 미공군 정찰대는 북한 하늘 아래에 숙련된 조종사들이 출현했다는 것과 소련 조종사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07]

---

106 전현수, 650-651 쪽.

107 Futrell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ised Edition,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Washington D.C.1983, 302 쪽. 전현수, 657

한편 소련공군을 많은 격추공적을 이루어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많은 공군기가 격추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1950년 11월 1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만주의 기지에서 연 60,450일 주간과 연 2,779일 야간전투출격을 하고 주간공중전 1,683회와 야간공중전 107회를 하였다.

제64 전투비행군단의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공적은 1097대 (B-29 65대, B-26 7대, RB-45 2대, RB-50 1대, F-47 2대, F-51 28대, F-80 118대, F-84 185대, F-86647대, F-94 11대, F4U 1대, F6F 3대, F3D 1대, F8 26대)격추의 승리를 하였다. 전체상실은 항공기 335대와 조종사 120명이고 이중에 공중전에서 항공기 319대와 조종사 110명을 잃었다.

이것은 제64 전투비행군단의 기록문서에 의한 것으로 항공사단과 항공연대의 보고서에 기초한다.[108] 시간, 장소, 공격의 방향, 날씨상황, 공격의 결과, 격추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추락장소를 보고 하며, 다른 조종사들이 비슷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증거가 된다. MiG-15에 장착된 gun film도 총격의 목표를 보여준다.

사실은 공중전에서 공격받은 적기를 시간을 갖고 관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보고서는 드물다, 어떤 경우는 손상된 적기를 격추로

쪽에서 재인용.

[108]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86 쪽.

잘 못 판단하기도 하고, 조정기술이 우수하여 갑자기 강하할 때 추락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F-86의 경우는 엔진파워를 올리면 꼬리에서 매연이 나와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매연을 뿜으며 한만 (Korean Bay)쪽으로 가파르게 하강하면 지상관측자는 추락으로 보고하는데 8,000-9,000m고도에 있던 항공기는 엔진이 고장 나서도 60-80km를 활공할 수 있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109]

소련 조종사들의 격추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1952년 중반에 격추인정이 까다롭게 되기 전까지 정확한 검증 없이도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이런 부정 확한 시스템으로 실제 격추한 경우에도 불충분한 인증으로 공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미공군의 자료에 의하면 139대(전투기 121 대, 폭격기 18대)의 항공기가 공중전에서 상실되었고 Sabre 조종사들은 792대의 MiG-15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했었다.[110]

다른 유엔측 자료에서는 전쟁기간 동안에 유엔군은 MiG-15를 827대 격추하였고 그 중에 792대를 Sabre에 의한 것이고, 230대를 상실하였는데 제트전투기는 112대 그 중에 Sabre는 78대가 상실되었다고 한다. Sabre의 격추율은 10:1이 된다, Sabre는 674대 가 배치되었었다. 중국공군의 상실은 231대 이중에 MiG-15가 106대, 북한공군의 상실은 중국군 개입 전 200대,

---

109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6-10 쪽.

110 Steven J. Zaloga, volume 74, issue 2.

개입 후 70대로 나와있다.[111]

격추의 주장은 언제나 과장된다. 최근의 러시아 자료는 MiG의 격추율은 3.4:1 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련공군 MiG-15조종사 중 52명이 적기 5대 이상을 격추하여 에이스(ACE)가 되었는데 그들 중 13명은 10대 이상의 격추한 더불 에이스(double ACE)였다.[112]한국전쟁 소련공군 조종사의 최고 에이스는 수트야긴 소령으로 22대를 격추하는 공적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얻는다, 다른 유명한 에이스는 페페랴에브 대령으로 19대 격추의 공적이면서 그 자신도 2번 격추 당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소련공군 조종사들 중에 21명이 최고의 공훈메달인 HSU (Hero of the Soviet Union)를 받았다.[113]이고르 세이도브의 저서에는 22명이 HSU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다.[114]

유엔군에서 한국전쟁 에이스는 39명으로, 미군 조종사의 최고 에이스는 MiG기 16대 격추를 주장하는 맥코넬 대위인데 8대 격추 후에 자신도 격추당했으나 긴급탈출 후에 구조되었었다[115]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50년 6월 26일~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미공군과 해군 및 연합국 항공대는 소련

---

111 'Jet over Korea', written by Edward Feurherd, Archival footage from Air Boss Stock Footage National Archives, YouTube.

112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86 쪽.

113 Steven J. Zaloga, volume 74, issue 2.

114 Игорь Сей дов (세이도브), 431 쪽.

115 'Jet over Korea', The Mc Conell Story ;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82 쪽.

비행기 976대를 파괴하고, 미공군은 1,466대, 미해군은 368대, 연합국 항공대는 152 대의 비행기를 잃었다고 한다 [116]

참전한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전선의 지상군을 엄호하고 지원하는 지상공격기나 폭격기의 조종사가 아니라 전폭기를 저지하는 요격기 조종사로서 임무를 하였다.

미공군은 한국전쟁 초기에 수월하게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퍼트렐은 "북한공군이 1950년 7월 20일 이후 잔존 항공기를 더 이상 공격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유엔군이 한국전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하였다 [117]

이렇게 본다면 한국전쟁 시기 제공권 문제에 대한 주장은 전쟁초기를 제외하고는 유엔공군이 압도적인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군의 파병 이후 소련공군이 미그 앨리에서 거부적 제공권을 유지하고 확전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치적 이유로 만주가 성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조선-중국연합공군의 MiG-15기의 전략증강이 가능하였다. 미공군을 위협하는 것은 처음에는 소련공군뿐이었지만 조선-중국연합공군이 합세하였다. 1951년 중반 이후에 미공군은 공산공군과 균형적 상황에서 열세한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는 수준이 되었다.

---

116 Futrell R, 692 쪽. 전현수, 666 쪽에서 재인용.

117 Futrell, 101 쪽. 장성규, 119 쪽에서 재인용.

미공군은 B-29의 많은 상실을 무릅쓰고 북한지역의 비행장 건설을 막아내었지만, 만주에서 전력증가는 막을 수 없어서 유엔에서는 금지하였지만 월경추격의 필요성이 지지를 받을 정도가 된다. 미그 앨리에서 항공전력은 서로 우세를 내어주지 않고 양측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다고 본다.

그러므로 미공군은 1953년에 이런 균형을 깨는 항공력을 이용한 압박이 정전협상의 해결책으로 떠올라 항공압박전략으로 공세를 강화하였다.

제 4 장 참전 소련공군조종사들

1. 조종사들의 전쟁에 대한 기억

한국전쟁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소련공군의 다른 해외참전(스페인, 중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보다 중요했었고 더 격렬한 공중전으로 상실도 제일 많았었다.[118]

전쟁에 대한 기억은 참전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19대를 격추한 페페랴에브 대령 (제324 항공사단의 제196 항공연대 참전 당시는 중령)의 회상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에 왔을 때는 정신적 무장도 다시 해야 했고 비행기도 달라서 하루하루 공중전을 하면서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119] 페페랴에브는 1994년에 오르롭(이글클럽)이 초청하여 미국 알라바마 주에서 미국의 참전 용사들과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다.

미국의 에이스 (ACE)들과 한국전쟁을 회상하였고 기자들의 질문들도 많이 받았다. MiG-15bis의 전략에 관한 것과 당시에 미국이 제공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질문하였다. 소련공군이 한국말로 지시하여 MiG-15bis를

---

118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17쪽.

119 앞의 글, 167 쪽.

북한공군이 조종했었느냐는 질문도 있어 대답을 하였는데, “다 틀립니다, 소련공군은 한국말을 몰랐었고, 아쉽게도 그런 수준에 있지도 못 했습니다. 지상지휘가 아니라 공중에서 상황을 판단하며 선도그룹의 편대장이 전투를 지휘한다.” 고 답했다.[120]

로포브는 “우리는 폭격기가 없었다, 우리는 미국군함에 대한 폭격이 한번도 없었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페페랴에브는 “작전 중에 폭격기가 출격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출격을 준비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121]

페페랴에브는 자신의 국가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국가의 명령으로 온 소련 조종사들에게 피를 흘려서 임무를 완수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다. 우리들의 전략은 직접 공격에 나서기 보다는 방호역할이었다. [122] 참전했던 소련조종사들은 중국군이나 북한군의 지상부대와 협력은 없었다, 참전한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폭격기조종사가 아니라 모스크바를 방호하던 항공사단의 요격하는 제트전투기조종사들이었다.

스모르치코프의 회상에는 1951년 3월에 안동에 와서 중국비행사 제복을 입었고 북한공군 마크를 붙인 MiG기로 출격하였다. [123]

---

120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302-310 쪽.

121 Holliday, Air Operations in Korea, 154 쪽. 션즈화, 317 쪽에서 재인용.

122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129 쪽.

123 Komsomolskaia Pravda, june 9, 1990.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서동만 옮김), 서울:

참전조종사 스몰체코프는 부대가 이동할 때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주도 이동하였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소련군복을 입지 못하고 러시아어 사용도 금지하였다.[124]

페페랴에브 대령의 회상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련 조종사들은 중국으로 가기 싫었지만 국가의 명령으로 가게 되었고 나는 한국전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기차로 도착하여서 중국 군복으로 갈아입고 임무를 시작하였다. [125]

국가의 명령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계급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었다, 크레마렌코는 편대장으로 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조선전쟁에 참전하고 싶으냐'고 물은 뒤에 뽑았다고 하였다. 대화는 하는 수 없이 러시아 말을 사용했다, 미군은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지만 미군지휘부는 소련 참전 사실을 감추고 싶어했던 것 같다. 우리는 전쟁기간 동안에 1309대를 격추시켰다, 그중 B-29는 200대였는데 이는 전체미군보유의 3분의 1이나 된다, 우리는 335대 비행기와 135명의 조종사를 잃었다.[126]

페페랴에브는 자신이 격추시킨 항공기에서 긴급탈출 한 조종사에게 기총사격을 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에 맡겼었다. 다른 조종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으로, 격추만으로 만족하였다. 다른 소련조종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창작과 비평사, 1999, 51 쪽에서 재인용.

124 한국전참전 소련조종사 스몰체코프 면담, 1992년 6월 23일. 박명림, 208 쪽에서 재인용.

125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121 쪽.

126 '한국전쟁 50년/ 소련의 개입', 『경향신문』, 1990년 8월 23일자, 13면

들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사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1953년 6월 29일에 고르브노브 중위는 긴급탈출 하였을 때 기총사격에 의해 희생되었다.[127]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안동의 제224 항공연대에 근무한 콜레스니코브의 회상은 기지를 봉쇄하며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공격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128] 공중전에서의 승부를 공정한 겨루기로 여긴 것이다.

소련공군 조종사가 긴급탈출 후에 북한 지역에 착지했을 때 중국군이나 북한군에게 서양인이기 때문에 미군으로 오인 받고 살해 당하는 수가 있었다. 똑똑한 조종사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가게에서 모택동이나 김일성의 얼굴이 그려진 여름 자켓을 사서 밖으로 입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게된 중국군과 북한군은 소련공군 조종사들을 쉽게 구분하고 같은 편으로 대하게 되었다.[129]

훼도레츠 소령에게 1953년 4월 12일은 기억에 남는 날이었다, 14000m 상공에서 15~20분의 공중전이 끝나고 연료제한으로 기지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무선에서 도와 주라는 소리가 들렸고, 1500-2000m 아래에서 MiG기 뒤에 Sabre가 추격하는 모습이 보여서 Sabre 뒤로 가서 격추시키고,

---

[127]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128 쪽.

[128] Лев Петрович Колесников『Под крылом-Ялуцзян 224-й ИАП в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е』, Русские Витязи, Москва 2013(콜레스니코브, '224항공사단이 한국 전쟁에서', 루스끼에 비드야지, 모스크바 2013), 20 쪽.

[129]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246-247 쪽.

공격을 받아 조종간이 작동이 안되어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하였는데 얼어붙은 압록강너머 숲으로 떨어졌다. 중국 파르티잔들이 개를 끌고 왔다. 중국말로 소련조종사라고 하였는데 못 알아들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진 배지를 보여주었더니 같은 편으로 알고 환대하였다.[130]

경험이 부족한 중국공군 조종사들과 같이 작전할 때는 소련 조종사가 엄호하였는데 미군 조종사들은 이들을 노렸다, 중국공군과 북한공군의 항공기는 위장 페인트를 하지 않아서 잘 눈에 띠어 격추의 대상이 되었다.[131]

소련조종사들의 MiG는 공장에서 깨끗이 칠한 항공기는 40-50km 거리에서도 식별된다는 불만 때문에, 1952년 2월에 테스트하여 제트기 윗면은 silver-green으로 아랫면은 mid-blue 로 위장 페인트 하였었다.[132]

한국전쟁 60주년인 2010년 6월 28일 러시아신문 이스베스치야의 에카테리나 기자는 참전 에이스 조종사 이바노프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1951년 1월부터 1952년 3월까지 참전하여 북한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다가 1951년 4월부터는 안동에서 작전을 하였는데 150번 출격하고 87번 공중전을 하였다, 어떤날은 하루 3번도 출격하였다고 하였다, 편지 쓸때는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격추라는 말 대신에 축구했는데 한 골을 넣었다는 식으로

---

130 『V3let.ru』 (http://v3let.ru/tvorchestvo/3-2009-10-15-18-17-52/109-fedorez.html), ('브즈려드')

131 Лев Петрович Колесников, (콜레스니코브), 153 쪽.

132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60-61 쪽.

썼다. 참전하기 전에 35년 동안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하였다. 미군조종사들은 특수비행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련조종사에게는 없다가 나중에 비슷하게 만든 것을 지급받았다고 하였다.[133]

전쟁 당시의 기억을 동하여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MiG-15 전투기로 방호 역할만 하였고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하여 출격한 적이 없었다. 중국군 제복과 북한 마크로 위장하여 참전하였고 많은 수는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한 최고의 요격기 조종사로서 유엔공군과 당당한 공군전을 하였다. 비상 탈출을 하였을 때는 미군 조종사로 오인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다.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하였고 비밀을 지켜야 했었다.

2. 귀환 후 비밀참전의 그늘과 인정 후 변화

냉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전쟁에 비밀 참전했던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과 달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고 잊혀진 사람들로 지내왔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한국전쟁에 소련공군이 비밀 참전한 것이 알려지지 시작하였다. 소련공군의 참전에 대한 연구는 서방측 외국인들이 시작하였는데

133 『Известия'』 http://izvestia.ru/news/363154 ('이스베스치야'), 2010년 6월 28일자.

미국, 영국, 호주의 참전공군 조종사에 의한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였다고 자랑하였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참전한 소련 조종사들의 의견을 궁금해 하였다.[134]

소련에서 1980년대 후반에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내부의 사람들은 1990년대까지 한국전쟁에 자신들의 군대가 비밀 참전하여 희생된 공군 조종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국가는 참전시킬 때 서류에는 출장이나 부대이동으로 숨겼다. 공훈을 줄 때에도 국가의 명예를 높게 했다는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의 참전을 밝히지 않았다.

전사자의 장례식에서도 국가의 임무를 수행 중에 희생된 것으로 하고 공중전에서 전사하였다고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책을 이고르 쎄이도브가 펴냈다. 국가가 비밀로 하였고, 소련조종사들은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싸우는 상대편 미국이 알면 안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임무를 하였고 귀환한 후에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하늘에서는 무선통신으로 인하여 숨길 수는 없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비밀로 지켜야 할 정보에 대한 두려움이 참전 조종사들에게 남아 있었다.[135]

참전 조종사 오시긴은 참전의 공훈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군복을 입지 못하고

---

134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259 쪽.

135 앞의 글, 259-260 쪽.

민간인 복장으로 훈장을 받았고 왜 그러한 훈장을 주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되지도 않았다. 훈장증에는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런 활동이 어떤 점에서 기여했다고 인정되므로 영웅칭호를 주는지가 빠져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조종사들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포트 아르투트 (랴오닝성 뤼순)에 묻혀있다.[136]

한국전쟁에서 3,500명 정도 (그 중에 22명은 HSU)가 상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참전 기념비도 세울 수 없었으며 전사한 군인들의 묘지도 중국 (랴오닝성 뤼순)에 있었는데 1950년대 후반의 중소분쟁으로 관리도 되지 못 하였고, 1990년대 후반이 되어야 조종사들의 가족과 친지가 방문할 수 있었다. 1989년에 소련정부는 국외에서 근무한 조종사들에게 보상금을 주었다, 1993년에 러시아 정부는 소련의 한국전쟁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93년에 북한이 소련조종사 5명 (그 중에 3명은 에이스)를 초대하였다.[137]

1993년 7월 23일, 한국전쟁 종전 (북한의 전승절) 40주년에 북한은 참전 소련조종사들을 평양으로 초대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때 피를 흘려서 도와준 참전 (항미원조)의 고마움을 이야기 하면서 소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어서 실망하였다. 우리는 한달 동안 잘

136 '중국군 위장…한국어로 교신했다' 『중앙일보』, 1990년 6월 25일자, 5면.

137 Игорь Сей дов (세이도브), 432쪽.

대접받고 왔다.[138]

1994년 4월에 미공군의 에이스 휘셔 대위가 키에프를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처음으로 제224 항공연대 소련공군 조종사들 3명 (게르만, 이랴센코, 우그루모브)과 회동하였다, 휘셔는 1953년 4월 7일 다푸 소련기지 상공에서 우그루모브의 MiG를 격추시키고 그는 베레리즈 대위에게 격추 당했다. 긴급탈출하였으나 착지하여 포로가 되어 27개월을 보냈다. 키에프 식당에서 제196 연대의 쉐라모노브 대위도 만났다. 휘셔의 방문은 미공군 에이스로는 처음이었다. 1999년에는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 조종사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다음해에 소련조종사들을 미국으로 초대했다. 이제 러시아에서 참전 조종사들에 관한 책들과 회고록도 나오기 시작했다.[139]

페페라예브는 참전 당시 소련 조종사들을 존경하였는데 국가적으로는 잊혀진 영웅으로 가족과 동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며, '만약 스탈린이 살아있었다면 그런 사회적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140] 그러나 국가적으로 비밀 참전이기 때문에 스탈린도 드러나게 영웅 대접을 못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138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291- 295 쪽.

139 Игорь Сей дов (세이도브), 433 쪽.

140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 (페페랴에브), 185 쪽.

냉전시대의 소련에서는 비밀 참전으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전사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왜 훈장을 주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참전 기념비도 세울 수 없었고, 전사자 묘지도 소련영내에 만들지 않았다.

전쟁은 전쟁지역의 군인과 민간인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국가의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개인이 존중 받지 못하던 냉전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적 예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인의 기억마저 지우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었다. 즉, 냉전이라는 체제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개인이 사라져 버린 것이 바로 소련공군의 비밀참전의 실체이었다는 것이 참전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제 5 장 맺음말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한국전쟁 당시에 알려진 것처럼 개별적으로 지원한 “지원 조종사들 (volunteer pilots)”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으로 항공사단 규모로 외국으로 파견되고 교체되는 정규 소련공군으로 전투 근무를 한 것이다. 중국에 도착한 소련공군 조종사들은 중국 군복을 입고 중국공군으로 위장하여, 1950년 11월 1일 처음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시작하고, 1950년 11월 24일부터는 북한공군으로 위장된 MiG-15 전투기로 비밀 참전하였다.

1952 년에 만주의 압록강 지역에는 소련공군의 2개 항공사단, 중국공군의 2개 항공사단, 1개 북한공군 사단이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부는 1952년 새로 개발 되어 동유럽에 배치한 MIG-17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지는 않았다. 소련은 NATO에 대항하는 동유럽을 더 중요시하고, 미국을 의식하여 휴전회담도 시작되었고 확전을 우려해 자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공중 엄호를 약속하였었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련공군은 중국 지상군에 대한 엄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방엄호만 하면서, 북한공군과 중국공군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가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거듭 되는 중국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련공군은 한반도 내 기지로 이동하지 않고 비행기지를 중국 영내

만주지역에만 두고 한반도 내 북한지역(미그 앨리) 상공에서 비밀 작전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산측의 후방지원과 보급선을 보호하며, 조선-중국연합공군의 공중전력을 건설하여, 중국군 개입 이후의 전황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미국은 중국의 개입 후에도 중국과 전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트루먼의 입장이었고 소련도 전면전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국한되는 제한전이 되었다, 중국군의 병력과 물자의 집결지인 만주 지역이 미국공격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일종의 성역이었다면, 공산측이 전선의 후방지역으로 공군력을 동원하여 공격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와 같이 전개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면 소련이 한국전쟁에 비밀 참전하게 된 근본원인 은 첫째는 한국전쟁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나설 수 없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미국이 개입한 후 한반도 문제로 미국이 소련을 핵 공격하게 될 구실을 만들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예상하였던 것 보다 전쟁상황이 급변하여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상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군은 항공전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군의 파병을 이끌어 내고 지원하려면 소련공군을 참전 시키는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서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자유진영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공산진영 사이의 동서냉전의 대결이었으며, 한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진 국지전인 동시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지 않은 국제전이었다.

한국전쟁을 지원한 스탈린은 소련을 빼고 미국이 일본과 단독으로 전후 문제를 해결(단독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일본이 부활해서 미국의 동맹국이 되는 것을 우려 하였는데, 전황이 악화 되어 한반도 전체가 미국과 일본의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중국의 파병이 절실하였고 이에 따라 소련의 공군 참전도 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쟁의 결과는 일본은 전쟁 특수로 인하여 빠른 전후 복구와 미국과 강화조약 후에 재무장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스탈린의 도박은 실패한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제공권은 지원한 소련조종사도 있지만 주로 북한공군과 중국공군이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월등한 격추비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독무대로 묘사되어 왔다. 진실은 정규 소련공군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MiG-15 이었고, 많은 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공중전 경험을 갖고 있었다.

1950년 11월 1일 한국전쟁에 등장한 MiG-15는 초기 2달 정도는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유엔군의 구형 제트기 (F-80, F-84)들에 비해 빠른 상승속도로 높은 고도에서 상대할 자가 없었으나 1950년 12월 17일 비슷한 성능을 가진 F-86 Sabre의 등장으로 균형이 맞게 된다. MiG Alley에서 B-29 손실이 높아서 신의주출격을 금지하기도하고, 1951년 11월부터 극동공군은

B-29를 야간 공격만 하도록 한다. 소련공군은 작전지역 내에서 거부적 제공권을 확보 할 수 있었다. 확전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정치적 이유로 만주가 성역으로 보호 받을 수 있어서, 소련공군이 훈련시킨 조선-중국연합공군의 MiG-15기의 전략증강이 가능할 수 있었다.

1951년 중반 이후에 미공군은 공산공군과 균형적 상황에서 열세한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는 수준이 되었었다. 미그 앨리에서 항공전력은 서로 우세를 내어주지 않고 양측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다고 본다. 소련공군에 비해 많은 대수 (F-86 674대 배치)의 유엔공군은 전쟁기간 동안 격추율 10:1을 주장하고 소련공군은 3.4:1 이라고 한다.

비밀 참전한 소련공군의 조종사들과 지상 요원들은 참전의 사실을 비밀로 하여야 했고 전사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고 진짜 사망 원인을 숨겼다. 공적을 쌓고도 공식적인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참전 기념비나 전사자 묘지도 소련영내에 없었다. 비밀로 지켜야 할 정보는 참전자들에게 두려움과 압박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1993년에 한국전쟁에 소련공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개인의 권리 보다는 국가의 목적이 우선이었던 냉전체제의 소련에서, 역사적 사실과 개인이 사라져 버린 것이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의 실체이었다는 것이 참전 조종사들의 증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만약에 소련공군이 비밀 참전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불가능하였거나 참전의 규모도 1950년 10월 북한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할 경우에 엄호하는 수만 명 정도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유엔 측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었더라도 탈출한 북한 지휘부는 만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한반도 내 게릴라전을 비롯한 장기적 군사 행동을 냉전이 끝날 때까지 지속하였을 것이다. 스탈린은 냉전 시대에 한국 전쟁의 실패를 만회 하기 위해 다른 지역 (동유럽, 발칸)에서 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1) 단행본

박태균, 『한국전쟁』, 서울: 책과 함께, 2005.

이완범, 『한국 전쟁 국제 전적 조망』, 서울: 백산 서당, 2000.

A.V. 토르쿠노프, 『한국 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 서울: 에디터, 2003.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 (김광린 역) 아.태평화 재단 연구총서, 서울: 도서 출판 열림, 1998.

션즈화, 『마오쩌뚱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2010.

김영호, 『한국 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서울: 두레, 1998.

윌리엄스톡, 『한국 전쟁의 국제사』, 김형민 김남균 조성규 김재민 공역, 서울: 푸른 역사, 1999.

이중근 편저, 『6.25전쟁 1129일』, 서울: 우정 문고, 2013, 『군과 나』, 서울: 시대 정신, 2009.

조갑제, 『트루먼과 스탈린의 한반도 게임 비사』, 서울: 조갑제 닷컴, 2013.

와다하루끼,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기원』 (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1997.

박명림, 『한국 전쟁의 발발과 기원』, 서울: 나남 출판, 1996.

장성규, 『6.25 전쟁기 미국의 항공 전략』, 서울: 좋은 땅, 2013.

김태우, 『폭격』, 서울: 창비, 2013.

2) 논문

전현수,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3) 한국 신문

'중공군 위장...한국어로 교신했다'『중앙일보』, 1990년 6월 25일자, 5면.

'한국전쟁 50년/ 소련의 개입' 『경향신문』, 1990년 8월 23일자, 13면.

2. 영문 문헌

1) 단행본

Leonid Krylov and Yuriy Tepsurkaev, *Soviet Mig-15 Aces of the Korean War*, NY: Osprey, 2008.

2) 전문잡지

Steven J. Zaloga, “The Russians in MiG alley”: the nationality of the “honcho” pilots is no longer a mystery, The Soviets now admit their part in the Korean war”, *Air Force Magazine*, volume 74, issue 2, February 1991. www.airforcemag.com

3)기타

Stalin’s Secret Air War, www. Secrets of War.com, Documedia Group, YouTube.

Dogfights: MIG alley (television series) United Kingdom: The history Channel, Retrieved 2007-02-04.

‘Jet over Korea’, written by Edward Feurherd, Archival footage from Air Boss Stock Footage National Archives, YouTube

3. 러시아 문헌

1) 단행본

Евгений Пепелев『Лучший ас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ы МИГИ против Сей бов』, ЭКСМО Москва 2009 (에브게니이 페페랴에브, 『한국전쟁의 최고 에이스)에그스모, 모스크바 2009).

Лев Петрович Колесников『Подкрылом-Ялуцзян 224-й ИАП в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е』, Русские Витязи, Москва 2013 (콜레스니코브, 『224항공사단이 한국 전쟁에서』, 루스끼에 비드야지, 모스크바 2013).

Игорь Сей дов «Советские асы корей ской вой ны», Фонд Русские Витязи Москва 2010 (이고르 세이도브 『한국 전쟁에서 소련 에이스』, 루스끼에 비드야즈, 모스크바 2010).

А.В.Торкунов «Загодочная вой на: корей ский конфликт», РОССПЭН, Москва 2010 (A.V.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로쓰벤, 모스크바 2000).

2) 러시아 신문

『Vзlet.ru』 (http://v3let.ru/tvorchestvo/3-2009-10-15-18-17-52/109-fedorez.html), ('브즈려드')

『airaces.narod.ru』

『Известия』http://izvestia.ru/news/363154 , ('이스베스치야') 2010년 6월 28일자.

3)기타

『Единая Корея , onekorea.ru (한국에 관한 정보 , 한국전쟁, 뉴스, 한류 등)

< Abstract >

The study for the covert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ir Force in the Korean War

Iliiazova Kymbat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ussian Federation formally admitted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ir Force in the Korean War at first time in 1993, although it was recognized that the Soviet Union dispatched restrictedly their pilots to the Korean Wa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viet Union'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olitical decision on the participation, aerial combat

actions, and roles in the Korean War concerning the entering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Korean War. In fact, the Soviet Union tried to avoid the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ad to join in the Korean War with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facts kept in secret under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System through the Soviet pilot's remembrance.

After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entered in the Korean War, the Soviet Air Force kept their air base in the Chinese Territory Manchuria, did not go beyond the Pyongyang-Wonsan Line, maintained restrictive air supremacy in the combat zone, MiG Alley in the northwestern area of North Korea, and covered the supply lines of the Chinese People's Army. The Soviet Air Force built the Communist Air Force (North Korean and Chinese Allied Air Forces) in Manchurian Sanctuary where is excluded in an attack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for the political reaso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danger of extending war.

Although it was known that air supremacy was taken unde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in fact it is not true except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before the Soviet Air Force joined in

the War. Air Forces in MiG Alley competed each other in the balance of aerial fighting strength.

Since the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ir Force was inevitable decision for the join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the Korean War, the Soviet Union participated in secret for avoiding the direct collision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dertook limite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extending war.

The Soviet Air Force pilots had to be silence their participation of the Korean War, kept secret the real cause of death even when they died during the War, and did not receive relevant official honors. In the Soviet Union, there were no war memorials and the cemetery for the warriors of the Korean War. It was only fear and pressure left for them about the covered information. Historical facts and individual participants were disappeared in the Cold War System due to the covert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ir Force.

Key Words: Soviet Air Force, Korean War,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air supremacy, MiG Alley, Manchurian Sanctuary, limited war, Cold War, Soviet pilot's remembrance,

Student Number: 2011-24212